

추도문

내가 경험한 송상용 선생님

김환석†

내가 송상용 선생님을 처음으로 대면한 것은 대학 신입생 때인 1973년 봄 교양 과목으로 수강했던 “과학사개론”의 강의실에서였다. 교양과목이었기 때문에 꽤 큰 강의실에서 여러 학과의 신입생들이 함께 수강하였는데, 그때는 고등학교의 입시지옥을 막 벗어나 이른바 대학생의 낭만을 추구하던 때여서인지, 수업을 시작하고 담당 교수가 출석을 부른 직후에 뒤돌아서 칠판에 당일 강의주제를 백묵으로 쓰는 순간을 이용해 교실 밖으로 소위 뺑뺑이를 치는 게 학생들 사이에 꽤 유행이었다. 그러면 그것을 미처 눈치 못 챈 교수님도 있었지만, 알면서도 그냥 눈감아 주시는 너그러운 교수님도 많았다. 나도 뺑뺑이를 쳐서 강의실을 벗어나 봄날의 낭만을 즐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용기가 없어서 그냥 대체로 참는 편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 슬리퍼를 신은 한 용감한 남학생이 출석을 부른 직후에 송상용 선생님이 칠판을 향해 뒤돌아서자 그대로 재빨리 걸어서 교실을 빠져나갔다. 그것을 알아챈 송상용 선생님은 성난 얼굴로 안색이 변하면서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 그 학생을 잡았고 큰소리로 야단을 치면서 뺑뺑이를 수차례 때렸다. 나는 그 장면을 보자 가슴이 쿵쥔거리면서 “송상용 선생님은 매우 엄격하고 무서운 교수님이구나.” 생각이 들었다. 이때의 기억은 내게 깊게 각인이 되었고 훨씬 후에 송 선생님을 여러 인연으로 만나 뵈는 때 계속

†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kmbird@empas.com

잊히지 않는 인상으로 남았다.

하지만 1970년대의 나는 문학청년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이고 철학적인 관심에 몰두하여 송 선생님과 접할 기회는 없었다. 그러다가 1980년 이후 내가 사회적 문제의식이 생기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취직하여 과학기술 문제에 대한 연구와 인연을 맺으면서 점차 송상용 선생님의 소식과 글을 접하게 되었던 것 같다. 이에 따라 그가 당시 군사정권에 반대한 해직 교수이며, 과학사뿐 아니라 과학과 사회의 관계에 특별히 관심을 보인 흥미로운 학자임을 알게 되었다. 1983-88년에 영국 유학을 다녀온 후 KIST의 과학기술정책 연구부서(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계속 근무하던 나는, 1990년경에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현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일과 관련하여 송 선생님과 처음으로 직접 조우할 기회를 가졌다. 당시 송 선생님은 과학기술계의 가까운 동료들과 새로운 과학문화 진흥정책을 추진하려 노력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나도 함께 끼워주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당시 나는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역할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송 선생님과 보다 본격적인 관계는 내가 대학으로 옮겨 자유롭게 과학기술사회학을 강의하고 연구하기 시작한 1994년부터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1995년 어떤 학술대회에서 나는 아마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과학기술사회학을 사회구성주의의 전개를 중심으로 소개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 참석하였던 송 선생님이 큰 관심을 보이며 칭찬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다. 1996년 국민대 사회학과로 옮긴 나는 과학기술사회학 연구에 박차를 가하면서 고려대 과학학협동과정에 강의를 나가는 한편 “과학기술과 사회 연구회”라는 세미나 조직을 결성하여 학계에 STS 저변을 넓히고자 노력하였다. 1997년 2월에 “복제 양 돌리” 실험 성공의 발표가 준 충격은 국내에서도 생명복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이를 계기로 김상현 박사와 함께 조직했던 “생명공학의 사회적 문제” 토론회는 결국 동년 11월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Center for Democracy in Science & Technology, CDST)의 창립으로 이어졌다. 시민참여에 의한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추구하는 CDST의 창립을 송상용 선생님은 크게 환영하며 격려해주셨다. 아마도 이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서구의 급진과학운동과 STS를 소개하셨던 송 선생님의 문제의식과 통하며 이를 시민운동의 형태로 국내에서 이어받는 활동이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이라 짐작된다.

1998년 2월에는 송상용 선생님의 주도로 한국생명윤리학회가 창립되었는데,

이를 위한 발기인 중의 하나로 나를 참여시켜 그 창립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 이는 복제양 돌리가 일으킨 국내의 생명윤리 논쟁이 가져온 또 하나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그 해에 3월부터 5월에 걸쳐 『교수신문』 지상에서 벌어진 이른바 “한국판 과학전쟁”은 나와 서울대 물리학과 오세정 교수가 각각 3회에 걸쳐 주장과 반론 그리고 이에 대한 재반론으로 이어졌는데, 마지막 7회는 송상용 선생님이 과학기술계 원로의 입장에서 종합적 결론을 내려주시는 형태로 마무리되었다. 당시 오 교수는 대략 실증주의 과학관이라 불릴 수 있는 관점을 취한 반면에 나는 사회구성주의 과학관이라 불릴 수 있는 관점을 취하며 서로 대립했고, 이과와 문과 학자 사이의 이 논쟁은 국내 학계에서 상당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서로의 다른 입장만을 확인한 채 끝났지만, 이 논쟁 후에 나는 기존의 실증주의뿐 아니라 사회구성주의 과학관 역시 무언가 불충분한 점이 있음을 강하게 느끼고 양자를 넘어서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실증주의는 과학지식을 자연이 결정함을 너무 순진하게 믿는 반면에 사회구성주의는 과학지식이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점만 강조하기 때문이었다. 다음 해에 그러한 모색의 돌파구를 나는 라투르의 행위자-연결망 이론(ANT)에서 발견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25년 동안 ANT는 나의 과학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계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되었다. 송상용 교수님은 이러한 나의 이론적 입장 변화에 대해서도 계속 지지하고 격려를 보내주셨다.

송 선생님은 STS가 국내와 동아시아에서 학문적 제도화가 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셨다. 2000년에는 고려대학교 과학학 협동과정의 주축이 되어 한국과학기술학회가 창립되었는데, 송 선생님은 이 학회의 창립을 축하하면서도 그것이 초기에 지녔던 고려대 중심성의 한계를 벗어나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대표적 STS 학회로 커나갈 수 있도록 자극을 주셨다. 더 나아가서 2003년 10월에는 대만에서 열린 동아시아 STS 네트워크 학술대회에 나를 포함해 거의 20명의 대규모 한국 학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셨다. 이 학술대회를 계기로 이후 동아시아 STS 학문 공동체는 크게 활성화되었으며 관련 국제 저널도 발간되는 등 서구의 STS 학계 못지않게 국제적 주목을 받는 STS의 센터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렇지만 송상용 선생님이 내게 가장 큰 추억을 남겨주신 것은 2005년 황우석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국제적 스캔들이 한국 과학기술계에서 터졌을 때, 황상의 선생님 그리고 나와 함께 생명윤리학회에 이에 적극적 대응(성명서 발표 등)

을 하도록 앞장서 생명윤리와 연구 진실성의 확립을 위해 노력한 일이다. 이러한 노력이 바탕이 되어 생명윤리학회는 단지 학문적 연구단체로만 머물지 않고, 국내에서 생명윤리법이 실제로 생명윤리와 연구윤리의 정책 및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나는 본다. 과학기술과 윤리의 관계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으며, 양자의 바람직한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선 학문적 연구뿐 아니라 실천적 활동이 필요하다는 평소의 신념이 그 바탕이 되었으리라 나는 믿는다. 그리고 송상용 선생님은 2004년에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World Commission on the Ethics of Scientific Knowledge and Technology, COMEST)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는데, 2008년에는 나를 그 후임으로 추천하여서 COMEST 위원으로 활동할 영광스러운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도 하였다.

대학교 신입생 시절 “과학사개론” 강의실에서 “무서운 교수님”이란 인상으로 시작된 송상용 선생님에 대한 나의 느낌은, 이렇게 약 오십 년에 이르는 관계를 통해 훨씬 누그러지고 인자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특히 서울의 오래된 맛집들에 통달하셔서 주위 사람들에게 때마다 그런 집들을 소개해주시고 음식을 맛보게 해주신 것은 유명하다. 나는 지금도 송 선생님이 한림대 교수로 계실 때 춘천에 나를 포함한 후배들을 불러 닭갈비와 막국수를 사주며 흐뭇하게 미소 짓던 모습을 기억한다. 따라서 송 선생님은 나에게 정겹고 항상 이끌어주시던 선배 교수로 남을 것이다.